

“농진청에 꿀벌 세상 보러 오세요”

오늘부터 2주간 ‘꿀벌이 만드는 육각형 세상 특별전시회’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꿀벌과 양봉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오늘부터 31일까지 2주간 농업과학관(전주시 농생명로) 1층 전시실에서 ‘꿀벌이 만드는 육각형 세상 특별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회는 ‘꿀벌나라 이야기’, ‘꿀벌이 주는 선물’, ‘꿀벌이 사라진다면’ 등을 주제로 전시 영역과 체험 영

역으로 진행된다.

‘꿀벌나라 이야기’는 꿀벌 집안의 구성원들이 가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구성해 재미를 더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꿀 생산 우수 품종 ‘정원별’과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품종 토종꿀 ‘한라별’도 함께 전시된다.

‘꿀벌이 주는 선물’에서는 꿀, 봉독, 화분 등 다양한 양봉산물과 양봉산물을 활용한 가공품을 전시한다.

‘꿀벌이 사라진다면’에서는 화분매개 등 꿀벌의 가치와 공익적 효과를 소개하고 화분 매개로 생산되는 과일을 소개한다.

또한, 양봉산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스마트 양봉, 고정양봉과 용·복합 산업 등에 대한 내용도 전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이들을 대상으로 벌집 구조와 꿀벌 가족을 알아보는 ▲퍼즐

맞추기 ▲여왕벌 찾기 ▲꿀벌 알 관찰하기 ▲꿀을 분리할 때 사용하는 기구인 채밀기 돌려 꿀 모으기 ▲꿀 시식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진행된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조남준 잠사양봉소재과장은 “이번 전시로 많은 사람이 꿀벌을 더욱 친밀하게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누구나 쉽고 재밌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특별전시회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NH농협은행, 중국 위안화유학비송금 출시... 올해 말까지 해외송금수수료 면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중국에 유학하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 등을 중국 교통은행에 개설된 계좌에 위안화(CNY)로 직접 송금하는 ‘위안화유학비송금’을 16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위안화유학비송금’은 중국 유학생 또는 중국에 유학하는 자녀가 있는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중국 내 대학교

등록금과 해외유학생 본인 거주목적 부동산 임대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이용할 수 있으며, 등록금고지서나 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전국의 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기존 미달러 송금 후 위안화로 수령하는 방식 대비 위안화로 직접 송금하기에 이중환전으로 인한 비용을 절

감하고, 중국내 2700여 교통은행 전 지점에서 수령가능하며, 영업일 3시 이전에 송금하면 중국에서 당일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상품출시를 기념해 올해 말까지 해외송금수수료를 면제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고객은 전신로 8천원만 부담하면 중국에 송금할 수 있다. 해외계좌수수료는 별도다.

김장근 본부장은 “위안화 직접 송금에 대한 니즈를 반영한 송금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이 편리함과 환전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금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영업점, 고객 행복센터(1661-3000, 1522-3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최근 전북 전주시 만성지구 내 만성법조타운지점 개점식을 가졌다.

전북은행, ‘만성법조타운지점’ 개점식 가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전북 전주시 만성지구 내 만성법조타운지점 개점식을 가졌다고 16

일 밝혔다. 이날 개점행사에는 임용택 전북은행장과 내·외빈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만성법조타운지점은 만성지구 내 최초의 1금융권 은행으로서 인근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은 이날 개점식에서 “만성지구 내 최초 1금융권

은행으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아파트 입주인 및 입점 상가 주민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며 지역은행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인터넷전문銀 선정 절차 돌입... “10월10~15일 접수”

‘제3인터넷전문은행’ 선정 재추진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금융당국은 16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0월10~15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심사결과는 오는 12월 중순께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에 재추진하는 이유는 지난 5월 진행된 예비인가 심사에서 신청 사업자들 모두 신규 인가를 받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해니밴드스마트은행’(가칭)은 기본적인 자본금·주주구성 관련 신뢰할 수 있는 신청서류가 미비하다

는 이유로 지난 5월 7일 일체감치 탈락했다. 이후 금융위는 같은 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비사업자를 선정해 발표했으나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컨소시엄 모두에 대한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은 무산됐다.

금융위는 인가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가개수, 인가절차 및 심사기

준 등 기존 인가 추진방안의 큰 틀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 및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해 2개사 이하를 신규 인가한다는 방침은 유지된다. 또 은행업은 인가단위가 구분돼 있지 않은 만큼, 인터넷전문은행 법령에 따른 업무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된다.

/뉴시스

전북의 랜드마크로 ‘우뚛’

전북중기청, 백년가게 현판식 개최
맞춤형 컨설팅·정책자금 금리 우대 등 지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16일 2019년 ‘백년가게 현판식’ 제공에서 1차로 선정된 전북지역 3곳 중 ‘신도불이, 남문소리사’에서 ‘백년가게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백년가게’로 선정된 ‘신도불이’는 1976년부터 전북대학교 정문에서 2대에 걸쳐 41년간 나들가게를 운영하며 주변 소상공인들과 상생하고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여 주요 고객인 대학생들에게 차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변 상권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했다.

또한, ‘남문소리사’는 1979년에 개업하여 전자제품 판매업을 영위하며 ‘고객은 가족’이라는 철학과 30년 전에 구매한 제품도 수리해주는 서비스 정신으로 오랜 고객층이 형성됐으며, 청년층 고객과의 소통을 위한 SNS 홍보와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0년 이상 존속하고 성장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고자, 2018년부터 ‘백년가게 육성사업’을 통해 3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는 도, 소매업 또는 음식점업 점포를 대상으로 ‘백년가게’를 선정해 오고 있다.

선정된 백년가게에는 인증현판을 제공하고 맞춤형 컨설팅, 혁신역량 강화교육, 보증우대(100% 보증, 수수료 0.8% 고정), 소상공인정책자금 금리우대(0.4% 인하)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연계 지원하고 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전북지역의 백년가게는 16곳이 선정됐고 전국 대비(158개 업체) 10%를 점유하여 전국 17개 시, 도 중 충북, 서울에 이어 3번째 순위에 해당된다.

아울러, 현판식은 2018년에 선정된 9곳과 올해 4월에 1차로 선정된 3곳 중 2곳을 포함하여 총 11곳을 진행했다.

전북지방중기청 김광재 청장은 “다산다사의 구조로 인해 5년 생존율이 27.5%에 불과한 장수 소상공인이 극소수인 현 시대에 백년가게로 선정되어 진행된 현판식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업체들의 성공노하우가 도내 소상공인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자경 주무관(063-210-6446)에게 문의하면된다.

/김영태기자

농어촌공 순창지사, 인계저수지 녹조 방제작업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지사장 조남출)는 16일 순창군 인계면 인계저수지에서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질오염 녹조제거 작업’을 실시했다.

수질오염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요즈음 이러한 녹조방제 작업을 통해 저수지 녹조발생에 따른 수질악화 및 녹조 발생으로 인한 악취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 수질오염 방제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여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할 목적으로 했다.

녹조방제 작업은 수중에서 고압분무기 및 보트를 이용하여 녹조 제거제 고상 160kg, 액상 120L를 희석하여 인

계저수지에 살포하여 녹조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녹조 예방활동 및 방제작업을 하며 녹조 확산 차단에 노력하고 있다.

순창지사 조남출 지사장은 “관내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내고향 물살리기 운동 및 수질환경보전회 운영을 펼치는 한편, 저수지 녹조방제 즉시 방제작업을 실시하여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관내 농·축협 임직원, 양파 소비 촉진 운동 전개

농협중앙회 임실군지부(지부장 이승계)는 임실관내 농·축협(임실농협, 이수관농협, 임실축협, 임실치즈농협)과 양파 과일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생산 농가를 돕기 위해 임직원 1인 1방(20kg) 양파팔이주기 운동을 전개하

여 양파 소비 촉진에 기여했다.

더불어 농협중앙회 임실군지부는 지난 6월 27일부터 10일간 내방고객을 대상으로 양파 나눠주기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양파농가 돕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열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